



기획재정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1. 11.(수) 15:00	배포 일시	2023. 1. 11.(수) 13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<총괄>	재정집행특별점검단 집행전략과	책임자	과 장 문상호 (044-215-5330)
		담당자	사무관 이해인 (haein85@korea.kr)

최상대 차관, 「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」 주재

- 상반기 중 재정, 공공 및 민자부문에서 340조원 투입
- 민생안정 사업 11.2조원 및 일자리 사업 14.9조원, 상반기 집중 집행

-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11일(수) 14:00, 대한상공회의소에서 「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」를 개최하여
- ❶ 2023년 신속집행 계획을 검토하고, 설 민생안정대책(1.4일)을 포함한 ❷ 민생사업과 ❸ 일자리 · ❹ 사회간접자본(SOC) 등 중점 분야의 집행계획을 점검하였음

<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개요 >

- ▶ 일 시 : 2023. 1. 11.(수) 14:00
- ▶ 장 소 : 대한상공회의소(서울)
- ▶ 참석자 :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(주재),
교육부·고용부·해수부·중기부 차관 및 국토부 1차관 등
- ▶ 안 건 : ❶ '23년 신속집행 계획(기재부, 행안부, 교육부)
❷ 민생·물가안정 주요사업 집행관리 계획(기재부)
❸ 재정일자리 신속집행 계획(고용부)
❹ 사회간접자본(SOC)분야 집행관리 계획(국토부)

- 최 차관은 글로벌 경기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만큼, 경기변동성 완화 및 어려운 민생지원을 위해 연초부터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
- 역대 최고의 상반기 집행목표 수립 ·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, 1/4분기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중 집행해 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하였음

- 경기하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과 공공투자·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 밝히며,
 - 중앙·지방·지방교육재정을 합하여 재정에서 총 303조원*을 집행하며,
 - * 재정별로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집행관리대상을 선별하고, 중앙·지방교육재정 65%, 지방재정 60.5% 등 역대 최고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에 따른 집행규모 합계
 - 공공기관 투자계획 및 민자사업의 집행 가속화를 통해 상반기 중 각각 34.8조원*과 2.2조원**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임
 - *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연간 투자계획 63.3조원의 55% 수준,
 - ** 금년 착공 예정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민자사업(61개) 4.4조원의 51%
- 이와 동시에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재정사업들이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, 일자리 등 주요 사업을 선별하여 밀착관리 추진
 - 민생안정 사업*은 연간 11.2조원 규모로 1/4분기 중 4.0조원(35.6%) 수준 집행
 - * 지원단가·대상이 확대되거나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 등 선별
 - 일자리 사업은 14.9조원으로 상반기 중 70% 이상을 집행하되,
 - 청년 일경험 지원·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청년일자리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과 1월 중 59만명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의 조기채용에 중점
 - 지역경제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(SOC) 건설사업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(GTX), 주요 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행이 가속화되도록 현장점검 강화
- 마지막으로 최 차관은 신속한 집행은 재정당국과 사업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일선집행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협업해야 한다 강조하며,
 - 부처별 집행점검단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애로요인을 신속하게 파악·해소하여,
 - 상반기 신속집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과 1/4분기 집행규모를 최대한 확대시켜줄 것을 당부하였음

※ (별첨)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 발언

- 금년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 영향도 본격화될 전망으로 매우 엄중
 - 특히 상반기 경기·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
 - 취업자 폭이 축소되는 등 고용여건이 악화되며,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될 우려
- 이에 정부는 ①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및 ②민생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연초부터 재정의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
 - 2023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(22.12.24.)된 지 사흘만에 역대 최고 수준(세출예산의 75%)의 예산배정계획을 의결(22.12.27.)한 데 이어,
 - 지난주 비상경제장관회의(23.1.4.)에서는 상반기 집행규모 최대화를 목표로 재정 및 공공기관의 집행계획을 확정
- 이제 역대 최고의 상반기 집행목표 설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/4분기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중 집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
 - 이미 집행준비가 되어 있는 이월사업, 사회간접자본(SOC) 계속사업 및 지자체 확정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1/4분기 집행 규모 최대화
 - 공고·사업자 선정 등 사전 집행준비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*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즉시 집행 개시
 - * 대금지급시기 단축(국가계약법 특례) 등 신속집행 지원 제도 적극 활용
 - 총사업비 변경, 수시배정 등 집행 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 포함, 집행 애로요인에 대해 집행특별점검단* 차원에서 신속 해소 지원
 - * 기재부 2차관 직속, 월 1회 이상 집행점검회의 개최, 애로요인 수시 파악

【 상반기 집행총량 관리 목표 】

□ 우선, 경기하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과 공공 및 민자부문에서 340조원을 집행하겠음

① 재정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*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여 총 303조원(재정별 상반기 집행목표 합계)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한편,

* 중앙재정 156조원(65%), 지방재정 131조원(60.5%), 지방교육재정 16조원(65%)

② 공공기관 투자계획 및 민자사업 집행 가속화를 통해 상반기 각각 34.8조원(총 투자계획 63.3조원의 55%) 및 2.2조원* 투입

*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 A노선(삼성~운정), 포천-화도 고속도로 등 '23년 공사 착공 예정 또는 공사 진행 중인 사업 61개, 4.4조원의 51%

【 사업군별 맞춤형 밀착 관리 】

□ 거시경제 관리를 위한 재정총량 목표와 함께,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재정사업들이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

○ 민생·물가안정, 일자리 등 주요 사업군별 밀착관리를 병행

□ 먼저 설 민생안정대책(1.4일 발표)의 주요 사업은 신청·집행이 원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

○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명절자금 7천억원*은 1월 2일부터 신청·접수를 시작하였으며, 1월 16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

* 중소기업 정책자금 5천억원 및 소상공인 지원(융자) 2천억원

○ 동절기 에너지바우처(117.6만가구)는 지원단가 인상(14.5→15.2만원)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1월 18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

○ 농축수산물 할인지원(300억원) 또한 행사기간(1.2~25일, 3주간) 동안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 모니터링 지속

□ 이와 함께 서민 생계부담 경감,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 등 11.2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사업을 선별*하여 맞춤형 집행관리

* 금년 지원단가·대상이 확대되거나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 36개 사업 선별,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추가·제외 등 탄력적으로 리스트 관리 예정

○ 개별 사업별 집행으로 해소 및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운영에 중점을 두고 1/4분기 중 4.0조원*(35.6%) 집행

*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 202억원, 경로당 냉난방비 등 501억원, 긴급복지 1,261억원, 부모급여 6천억원,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.7천억원, 서민금융 1.8천억원 등

○ 신규 도입된 부모급여가 예정된 1월 25일에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 등 사전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*

* 복지부·지자체·재정정보원 등으로 부모급여 도입 추진 실무지원단 구성·운영

□ 아울러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, 일자리 예산 14.9조원* 중 상반기에 70% 이상을 집행할 계획

* 전체 일자리예산 30.3조원 중 구직급여 등 집행시기가 정해진 의무지출 사업 제외

○ 특히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일경험 기회 제공, 민간주도의 청년창업 지원 및 직업훈련 제공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집행관리

▪ 양질의 직무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*의 품질 관리 및 확대 운영방안 협의

* 직무교육 이수 후 민간기업에서 실제 업무 수행('23년 신규), 417.5억원, 7,700명

▪ 1월 중 민간 주도 방식*의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 방안을 마련·공고하고 1분기 내 입교자 선발 등 신속한 집행 독려

* '22년 도입, 민간이 직접 청년 창업기업을 선발·육성·투자, 845억원, 915명

○ 한편,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94만명 이상 채용(총 104.4만개의 90%)을 목표로 1월 59만명 채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

□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(SOC) 건설 예산의 경우, 집행이 가속화되도록 주기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

○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(GTX)의 경우, 전년도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(집행률 71.8%)했던 만큼 노선별 적기 개통·착공*을 위한 분기별 집행 여건 재점검 등 집중관리 추진

* [A노선] 시험운행 착수('23.下), [B노선] 설계 착수('23.1), [C노선] 민자적격성 재검토('23.2)

○ 함양-울산 고속도로 등 집행준비가 된 도로 사업*이 1~2월 중 차질없이 착공되고, 1/4분기 내 선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

* 안성-구리 고속도로, 춘천-화천 고속도로, 압해-화원 국도, 충청내륙 국도 등

【 협조요청 】

□ 신속한 집행은 재정당국과 사업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일선집행기관이 하나의 팀으로서 협업이 필요한 작업

○ 부처별 집행점검단 운영을 강화하고,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현장 애로요인을 신속하게 파악·해소함으로써

○ 상반기 신속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에서 나아가, 1/4분기 집행규모가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